

국내경기는 2개월 연속 악화

~ 11개 도부현(都府県)에 긴급사태선언 재선포로 인한 하락세 압력이 강해져 ~

(조사대상 2만 3,695사, 유효회답 1만 1,441사, 회답율 48.3%,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1년 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감소한 33.9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긴급사태선언 재선포 등으로 개인 소비 관련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향후의 경기는 일시적인 후퇴는 보이나 봄을 기점으로 완만히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 10개 업계 중 9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11개 도부현(都府県)에서 긴급사태선언이 선포되어 개인 소비와 관련된 업종에서 체감경기가 더욱 하락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메이커의 감산(減産)도 보이는 가운데 『제조』는 8개월 만에 악화로 나타났다.
- 『미나미칸토』『호쿠리쿠』『킨키』 등 9개월 만에 전 10개 지역이 모두 악화되었다. 11개 도부현(11都府県)에 긴급사태선언이 재선포되어 개인 소비 관련이 크게 침체한 한편, 동해 쪽을 중심으로 나타난 한파 및 기록적인 폭설 등이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는 3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악화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이 모두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 2021년 1월의 동향 : 악화가 계속돼 >

2021년 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감소한 33.9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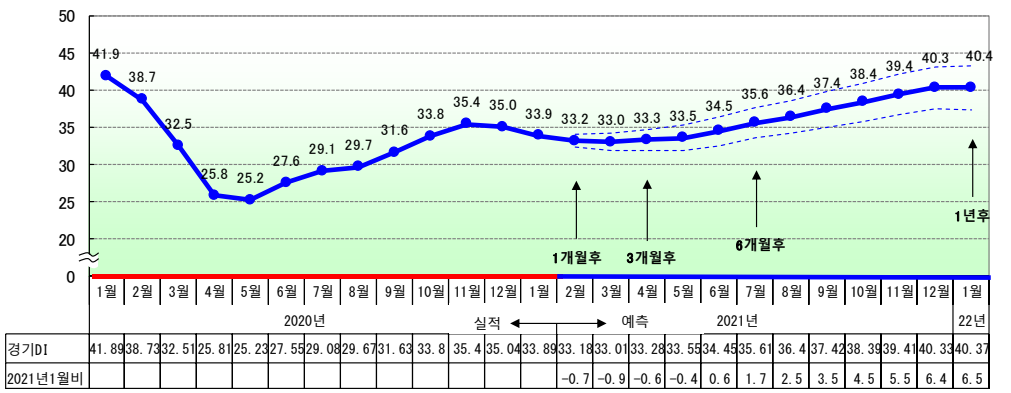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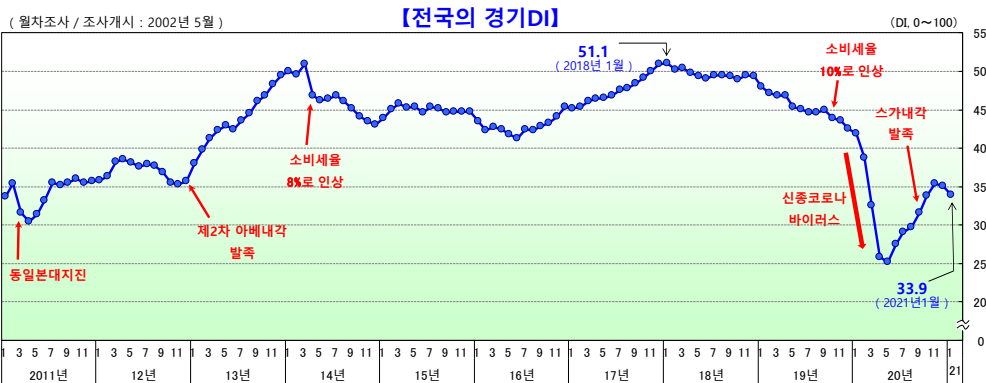
1월의 국내경기는 11개 도부현(都府県)에서 2번째 긴급사태선언이 선포되어 외출자제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이 실시됨으로써 다시 하락세 압력이 강해졌다. 또한 정부에 의한 각종 지원책의 일시 정지 및 기업의 출장 억제 등으로 숙박업계가 한층 악화되었다. 동해 쪽을 중심으로 나타난 한파와 기록적인 폭설 등으로 인하여 개인소비가 침체된 한편 자동차 메이커의 감산(減産)의 영향도 나타났다. 한편 반도체 제조 장치가 고수준으로 추이하는 외에 컴퓨터 및 난방기구 등을 포함하는 자택 내 소비관련은 상향 경향이 계속되었다.

국내경기는 긴급사태선언 재선포 등으로 개인 소비 관련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 향후의 전망 : 일시적인 후퇴 >

향후 1년 정도의 국내경기는 긴급사태선언의 연장으로 인한 영향 외에 사회 경제 활동의 억제 등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를 떠안고 추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상황에 따라 다르나, 지역간 및 업종간에서 경기동향이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고용·소득 환경의 악화로 인한 개인 소비의 영향은 우려요소가 될 것이다. 한편 백신 접종 개시로 인하여 경제 활동의 정상화에 대한 움직임이 더해져 자택 내 소비 등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수요의 확대, 미국 및 중국 등 해외경제의 회복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의 경기는 일시적인 후퇴는 보이나 봄을 기점으로 완만히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며, 예측치±2표준편차로 산출